

해외의약뉴스

항혈액응고제와 특정 진통제를 함께 복용하는 것은 출혈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의약품정책연구소

개요

항혈액응고제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계열 약물을 함께 복용하면 출혈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EINSTEIN 임상연구에 의하면 아스피린과 항혈액응고제를 병용 투여하는 환자의 대출혈(major bleeding)에 대한 절대위험도는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는 환자의 두 배이며, 다른 형태의 NSAID 계열 약물과 항혈액응고제를 병용 투여하는 환자는 항혈액응고제만 단독 투여하는 환자에 비해 출혈 위험이 세 배로 높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키워드

항혈액응고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NSAID

최근 연구는 와파린(Warfarin), 자렐토(Xarelto) 등 항혈액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등 NSAID(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계열의 약물과 병용 투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들은 다리나 폐의 혈전을 방지하기 위해 항혈액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과 같은 NSAID 계열 진통제를 복용하면 심각한 내부출혈의 위험에 놓여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내 NSAID 계열의 진통제는 아스피린뿐만 아니라 애드빌(Advil), 알레브(Aleve), 버퍼린(Bufferin), 엑세드린(Excedrin), 모트린(Motrin), 뉴프린(Nuprin)이 해당된다. 연구진들은 와파린(Warfarin), 엘리퀴스(Eliquis), 자렐토(Xarelto), 프라닥사(Pradaxa)와 같은 항혈액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은 NSAID 계열의 진통제를 병용하여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Bruce Davidson 박사¹⁾는 “항혈액응고제를 복용하는 동안 NSAID를 복용한다면 NSAID를 복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대출혈(major bleeding)의 위험은 두 배가 된다.”고 밝혔다.

Davidson 박사는 “대출혈의 1/4은 NSAID 계열 약물의 복용 후 8일 이내에 발생된다, 이는 진통제를 몇 주 또는 몇 달 복용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출혈은 진통제 1정의 복용으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박사는 또한 “불규칙한 심장박동을 증상으로 하는 심방세동을 가진 사람들이 항혈액응고제와 진통제를 병용 투여하면 출혈의 위험은 더욱 증가된다.”고 말했다.

1)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Medicine의 Pulmonary and critical care medicine 부서 소속

Davidson 박사는 만약 항혈액응고제를 복용한다면 NSAID 계열 진통제를 1정이라도 복용하지 말아야 하며, 두통, 근육통, 관절염이 있다면 타이레놀(일반 명칭,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고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NSAID 계열 진통제의 복용은 피하라고 덧붙였다.

4월 14일자 온라인 JAMA Internal Medicine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출혈 발생은 대부분 경증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Gregg Fonarow 박사²⁾는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이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출혈의 위험이 두 배로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박사는 “그러나 애드빌이나 모트린 같은 NSAID 계열 약물이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의 출혈 위험의 증가와 연관성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몇몇의 연구는 와파린, 엘리퀴스, 자렐토, 프라닥사 같은 약에서 출혈 위험도의 증가를 보였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Fonarow 박사는 환자들이 항혈액응고제와 NSAID 계열의 약물을 병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사는 “NSAID 계열 약물 또는 아스피린은 신중히 복용해야 하며, 효과가 유사하고 안전한 대체약물이 없는 경우에 사용되어야 한다.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도중 두통이나 근육통이 있는 사람들은 타이레놀을 복용하는 것이 권고된다.”고 말했다.

Davidson 박사 연구팀은 8,0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적인 EINSTEIN 임상연구의 심부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 데이터를 분석했다. 임상시험은 다리와 폐에서의 혈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약이 더 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하여 자렐토와 와파린을 비교하였다.

전문가들은 혈전을 막는 약물은 항상 내부출혈의 추가적인 위험이 동반되며, 이러한 내부출혈은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Davidson 박사팀은 항혈액응고제와 함께 NSAID 계열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키는지 살펴보고 출혈의 위험이 증가된다는 결과를 밝혀냈다.

박사는 “연구에 따르면 아스피린과 항혈액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심각한 출혈에 대한 절대위험도는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는 환자의 두 배이다. 다른 형태의 NSAID 계열 약물과 항혈액응고제를 병용 투여하는 환자는 항혈액응고제만 단독 투여하는 환자에 비해 위험도가 세 배로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구는 이러한 연관성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해내지는 못했다.

■ 원문정보 ■

http://www.nlm.nih.gov/medlineplus/news/fullstory_145671.html

2)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장학과 교수/American Heart Association 대변인